[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13)

성령님이 오시면

[본문 요한복음 16:1-15]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6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은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이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의 주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15장 18절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핍박과 손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므로 이 일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면 어둠은 우리를 몰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서도 절정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은 참된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핍박이 오는 것을 염려하고 겁을 내어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핍박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복의 절정은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화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민주화나 구제나 선행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인하여 받는 핍

박'이라고 제한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하다가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과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예수님을 높이려는 목적이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증인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잘 뛰어라 그래그래 계속 뛰어라'라고 응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외롭게 달리고 있을 때 수많은 관중들이 응원을 하며 환호성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고난을 겪고 순교하셨던 분들이 '나도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을 주님과 함께 모두 겪으신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은 6.25를 거치면서 직업도, 가족도 없이 보따리 하나와 성경책 한권을 들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잘 나오십시오.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 보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은 모두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만이 남습니다.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우리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을 겪을 때에는 먼저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언하는 처녀들이 '당신이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도바울을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게 고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환난이 올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받는 환난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지금을 알 수 없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재판장에 설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으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닥칠 위기도 미리 아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견디기가 쉬운 것입니다.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곧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5~6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하였도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고난이 왜 축복이며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깊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은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한번은 현실적으로 결정합니다. 한번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한번은 나 혼자 갑니다.

여러분,

롯의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롯과 결별하십시오. 믿음으로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국사회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미래를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당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미래를 약속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6~7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편안하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지만 고난이나 위험이 오면 하나님께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이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4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에서는 ‘진리의 영’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보내실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떠나야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2~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곳에서도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겪으며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환난과 고난을 겪을 것이며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재정문제나 건강문제의 해답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가정위기의 해답도, 결혼의 대안, 대학진학, 직장, 사업, 미래 등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모두 보혜사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 분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 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는 흔들리나 담벼락은 조금도 요동치 않듯이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은사는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름부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는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기도했지만 이제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기도하게 되며, 기분이 좋아야 찬송을 불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어로도, 방언으로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임하면 그분은 나에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

14장, 15장, 16장을 잘 살펴보면 이 본문들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그 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 분이 오신 것을 확인하고 환영하십시오. 그 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시작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며 직업의 해답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모두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줄 것입니다.

성령 총만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월급에서 십일조를 내고 나면 생활을 감당할만한 계획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을 지출하고 난 후 십일조를 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일조를 먼저 내고 나면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남에게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것을 내가 먹을 때 하나님은 아무 것도 하시지 않지만 내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일을 매일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해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이해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은 자신만만하게 삽니다. 자신만만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 '아버지와 나는 하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모두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한복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